

十九史略諺解 卷一에 대한 연구

김 주 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화곡본 十九史略諺解의 간행 연대
- III. 무간기 교본의 언어 상태
 - 1. 언어 상태
 - 2. 번역 상의 몇 문제
 - 3. 상백문교본과의 비교
 - 4. 규장각본이 반영하는 언어
- IV. 그 외 판본에 나타난 언어 상태
 - 1. 화곡판의 언어 상태
 - 2. 경중판의 언어 상태
- V. 맺음말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xylographic versions of *Ship-ku-sa-lyak Eon-hae*(*Korean Translation of Simplified Nineteen Dynasty of China*) systematically, and specifically discusses language state of Old Book without colophon version which was first carved among all of them.

As a monarchical scholarship in Choson Dynasty, *Ship-ku-sa-lyak* was essential requirement for royal family. By the late period of the Dynasty it became text for *yang-ban*(the Korean noble society of the past) sons. Some part of this book was Koreanized at latest in 1585, however this paper deals with the books after that time. The year of publication and their influences are as follows:

* 서울대학교 교수

Book without colophon version(early 18th century) → Hwa-gok version(1749) → Kyeong-jung version(1804) → Yeong-yeong version(1832).

These books give us an impression that there are frequent misspellings and missings from lack of accuracy in general that they almost have the shape of features found in many local versions. With all the weaknesses, since these versions show periodic change of language precisely, these are invaluable data for Korean Language History.

This paper examines the language state of, so called, Book without colophon, but the exact year and place of publication has still unknown, let alone influence of possible previous versions. However, the version was evidently published before 1749 in that it has features of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y versions. More specific linguistic features are explored as we proceed.

I. 머리말

조선왕조에서 十八史略, 十九史略은 自治通鑑과 더불어 왕실에서 제왕의 학으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었다. 특히 十九史略은 그 내용이 풍부하고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왕세자 등 왕실의 자제의 교육용으로는 빠질 수 없는 책이었다. 元의 曾先之가 十八史를 요약하여 초학자가 볼 수 있도록 편찬한 책이 十八史略인데 조선 초기에는 十八史略을 보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明의 余進 宗海가 1446년에 十八史略에 元史를 추가하여 펴낸 책이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약해서 十九史略이라고도 함)이다. 이후 조선조에서는 이 책이 주로 읽힌 듯하다. 十九史略이라는 책명이 실록에 처음 나타난 것은 1492년이며 이후에 실록에는 史略이라는 책명으로도 많이 나타난다. 동궁 등 왕실 자제에 대한 교육서이었던 만큼 일찍이 한글로 번역되기도 하였다.¹⁾

十九史略諺解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줄고(1998)에서 신자료의 소개와 함께 嶺營版 十九史略諺解의 간행 연대가 기존의 견해대로 1772년이 아니라 60년 뒤인 1832년이라는 사실을 밝힌 이후, 백두현(2000-)에서는 또 다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함과 동시에 花谷版 十九史略諺解의 간행 연대가 기존의 견해대로 1809년 또는 1869년이 아니라 1749년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줄고에서는 화곡판을 다루는 논문이 아니었으나 화곡판의 간행연대에 관해서는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줄고 1998:253) 백두현(2000-)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곡판의 간행 연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제 이본의 계통을 정리한 후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II. 화곡본 十九史略諺解의 간행 연대

현재까지 발견된 십구사략언해는 다음과 같다.

(1) 무간기고본²⁾ 권一之一³⁾, 권一之二, 권 二之二

- 1) 번역본 즉 『十九史略諺解』라는 책명은 1585년 간행된 『攷事撮要』에 처음 나타난다(줄고 1998: 257 각주 10 참고). 그 외의 간행물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백두현(2000) 참고.
- 2)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권一之一 규장각, 상백문고, 영남대학, 연세대학. 권一之二 동국대학, 백두현 교수, 권二之二 백두현 교수(줄고 1998 참고, 백두현 2002 참고). 영남대학 소장본(도서번호 Y0957141)은 규장각본과 같은 판본이며 第一卷이 두 권으로 나뉘어 채본되어 있다. 겉표지에는 각각 『史畧諺解 卷之初』(제1장~제55장), 史畧諺解 卷之二(제56장~제93장)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장인 제94장은 떨어져 나갔다. 영남대학본을 열람케 해주신 교서실의 옥영정 주임께 감사드린다. 한편 연세대학 소장본(백두현 2000-:13 각주 27참고)은 상백문고본과 같은 것이다.
- 3) 卷次 기록에 의하면 ‘卷之一’로만 되어 있으나 ‘卷一之二’가 있으므로 ‘卷一之一’로 부르기로 한다. 한편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卷一’과 ‘卷一之二’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둘은 시간 차를 두고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卷一’이라

花谷版 권一

京中版 권一

嶺營版 권一

이 중에서 경중판은 간년이 1804년이며, 영영판은 1832년이 확실하다. 무간기 고본은 이미 알려진 대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화곡판에 대해서는 기존의 1809년, 1869년 설에다가 1749년 설까지 추가되어서 혼란한 느낌을 갖게 된다. 백두현(2000-)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1. 형태서지적으로 지질과 표지가 18세기의 것이다.
2. 경중판을 보면 큰 글씨로 花谷新刊이라고 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京中改板이라고 되어 있음을 보아 논리적으로 경중개판보다 화곡신간이 연대적으로 앞서야 한다.
3. 언어적으로 17세기의 문법형태인 ‘-와’가 쓰이고 .의 표기에 혼란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곡판의 간행 연대를 확정하기 위하여 비교를 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백두현(2000-)의 주장대로 화곡판이 간기 屠維大荒落(즉 己巳年)은 1749년임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그 근거를 밝히기로 한다. 본고에서 이용한 자료는 백두현(2000-)에서 초쇄본으로 추정된 계명대학교도서관본이다. 쓴이는 백두현 선생과 함께 계명대학교서관 고서실에 가서 화곡본을 다시 한 번 정밀 실사를 하였다.⁴⁾

고 붙였을 때는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는 대목까지만 이해할 계획이었음에 비해 그 뒤 한문본의 ‘卷之一’을 전부 번역하게 되다 보니 ‘卷之一’이 없는 ‘卷之一之二’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 4)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신 장인진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2월에 실사하였으며 1998년 4월에 한 번 열람한 바가 있는 책인데, 남권희 교수와 백두현 교수가 추정한대로 초간본으로 보아도 괜찮을 책이었다. 쓴이로서는 영남대학 소장본인 좋은 재질의 종이에 가는 필획으로 새겨진 경중판을 먼저 보았을 뿐 아

줄고(1998)에 의하면 각 이본의 계통은 다음과 같이 된다.

(3) 무간기고본→경중판→영영판

문제는 花谷版이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 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이본을 비교함으로써 그 위치를 확증하려고 한다. 백두현(2000)의 주장을 감안하여 아래의 순서로 놓기로 한다(예는 모두 卷第一之二에서 들).

(4) 무간기고본(동국대본)	화곡판	경중판	영영판
(a) 디나 15a	지나 6b	지나	지내
흰벽 壁 15b	흰구슬 6b	흰구슬	흰구슬
cf. 구슬 78b	구슬 32b	구슬	구실
딕희매 18b	직희매 8a	직희매	직희미
쭈디 19a	쭈디 8a	쭈디	쭈디
cf. 쭈디 95b	쭈디 39b	쭈디	쭈디
헛브러늘 毀 25a	헛허거늘 10b	헛허거늘	헛허거늘
팔을 늘브러 舊臂 28b	팔을 쏜내여 12a	팔을 쏜내여	팔롤 쏜내여
메와사 ⁵⁾ 肉袒 48a	베와사 20a	베와사	베와사
발뒤머리 踵 61a	발뒤측 25b	발뒤측	발뒤측
썩기 嚙 72a	썩기 30a	썩기	썩기
한도집 刀劍室 78b	환도답 32b	환도답	환도답
오로다흐다 79b	오로디흐다 33a	오로디흐다	오로디흐다
(b) 움기니 29b	움기니 12b	움기어	움기어
홀딘더 36a	홀딘더 15a	홀딘이	홀딘니

나라 그 후에 본 거의 대부분의 화곡판이 종이의 질이 매우 나쁘며(뽕허물 종이-국립중앙도서관의 복사 담당 직원이 쓴 말) 필획도 굵은 중간 후쇄본이어서 비교적 선본인 계명대학본을 보면서도 이 책에 이음종이가 많이 있는 점(一 33, 二 18 21 24 33 36 40 등) 부분부분 보이는 굵은 필획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경중판보다 늦게 나온 것이라고 오판하고 말았다.

5) 이 글자는 ‘베’(비만 분명함)로 수정된 듯한 흔적이 있다.

비화 瑟 45b	비화 19a	비파	비파
씨르고저 46a	씨르고저 19a	싸르고저	싸르고저
우회 47a	우회 19b	우에	우에
잔치호고 70a	잔치호고 29a	잔히호고	잔히호고
저자회 70b	저자회 29b	저지의	저지의
맛디니 75a	맛디니 31a	맛기니	맛기니
cf. 맛써더니 83a	맛써더니 34b	맛써더니	맛써더니
피신자 87a	피신자 36a	피신지	피신지
다스더라 95b	다스더라 39b	다스러라	다스러라
위왕더려 103b	위왕더려 42b	위왕더리	위왕더려

먼저 (a)의 보기를 보면 대체로 화곡판, 경중판, 영영판이 같고 무간기 고본보다 언어 상태가 후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의 자료만으로는 세 판본의 상대적 연대를 말하기 어렵다. 한편 (b)를 보면 무간기 고본과 화곡판이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고 나머지 두 판이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나머지 두 판의 언어 상태가 후대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들의 영향관계는 자명해진다. 즉 무간기 고본을 저본으로 하여 화곡판을 新刊⁶⁾하였으며 화곡판을 판하본으로 하여 경중판을 改刊하였고 경중판을 저본으로 하여 영영판을 新刊하였다. 그렇다면 화곡판의 간기인 歲在屠維大荒落暮春花谷新刊에 나오는 屠維大荒落 즉 己巳年은 18세기의 1749년을 포함하여 1809년, 1869년 등의 가능성 가운데 1749년이 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이들 책의 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여진다.

(5) 무간기고본(18세기 초기)→화곡판(1749년)→경중판(1804년)→영영판(1832년)

이상의 결론은 백두현(2000)에서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 본들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결론을 보충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장을 마치기 전에 참고될 만한 실록의 기사를 인용하기로 한다.

6) 이렇게 볼 때 이들 책의 간기에 쓰인 新刊이라는 용어는 판형을 바꾸어 새긴 것을 뜻하게 된다.

(6) “박섬(朴暹)을 신문하니, 박섬이 공초하기를, “신은 이인석(李寅錫)과 함께 책방을 내고 있는데, 이양제(李亮濟)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략(史略)》 초권을 가르친다고 간 뒤에 다시 와서 《대명률(大明律)》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영조 28(1752년)/04/19(경술))

이 기사는 이양제의 투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지만 조선조의 방각본의 유통의 한 단면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의하면 1752년⁷⁾ 당시에 책방이 있었으며 책방에서 『史略』 즉 『十九史略』과 『大明律』이 팔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史略 초권을 사갔다고 하니 이 책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花谷版 『十九史略諺解』 第一卷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752년은 花谷版에 적힌 간기인 1749년에서 3년이 지난 때인데 그 때에도 시중에 책이 있었다는 점은 계명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花谷版 十九史略諺解에 辛未年 즉 1751년 12월에 구입했음을 밝힌 책 주인의 매득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1998년 4월 실사).

(7) 辛未十二月二十八日 冊主 李興叟 (卷之一 39b)

直伴 崔翼之 寫題目

辛未十二月二十八日 冊主 李興叟 春坊 直中 買得 (卷一之二 43b, 刊記장)⁸⁾

화곡판 경중판 등은 그 이전판에 비해서 작은 판형에 행수 자수를 늘인 전형적인 방각본의 형태를 띤다.⁹⁾ 즉 고판본이 반곽 10행 20자인데 비해서 화곡

7) 이 기사가 1752년의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1752년이 하한이 되며, 이양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책방을 다녀간 것은 그 이전일 수도 있다. 실록의 전후 기사를 통해서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대체로 1752년으로부터 2, 3년 안의 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8) 이 부분은 백두현(2000:34)에 사진이 있다.

9) 사실 쓴이로서는 이 점이 미심쩍어서 화곡본의 간년을 1749년으로 선뜻 인정할 수 없었음을 백두현 교수와 논의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생각에 1750년경에 이미 방각본이 있었을까 하는 점과 판식의 형태가 반엽 15행 33자라는

판 등은 반곽 15행 33자로서 한 쪽당 무려 2.5배의 글자를 새길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종이를 아낄 수도 있게 된 것이다.¹⁰⁾ 이 책의 간년이 확실하므로 이 책은 이른 시기의 연해본 방각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¹¹⁾

이하에서는 각 판본들에 나타난 언어 상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III. 무간기 고본의 언어 상태

위에서 말한 대로 무간기 고본 권一之一은 규장각본과 상백문고본이 있다. 여기에서는 규장각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기로 하며 상백문고본과의 차이점은 따로 언급할 것이다. 권一之二는 동국대학 소장본이다. 이하에서 출전 표시가 없이 장차만 있는 것은 규장각본 즉 권一之一의 것이며 동국대학본은 '1-2:장차'로 표시하였다. 이 책들은 판각이 매우 조잡하여서 오자 탈자 등이 매우 많이 있어서 지방 판각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어느 지역의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권一에 나타난 언어 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언어 상태

것이 방각판의 발달 과정에서 후기에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흔히 보아 왔던 연해본의 방각본은 新刊救荒撮要(1806년)와 같이 반엽 12행 24자 정도의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창현(1994:292)에 의하면 19세기 중엽에 가서야 반곽 15행본이 출현하고 있다.

10) 쓴이가 본 것 가운데 경중판 중의 하나(영남대학 도서관 소장, 도서번호 古는 912 중선지-4)는 광곽의 크기와 딱 맞는 종이에 채출한 것을 그것보다 큰, 새 종이라도 아닌 문서 종이(쉬는 종이 즉 休紙)로 배접한 것도 있었다. 종이를 얼마나 아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이창현(1994)에 의하면 방각소설로서 제일 빠른 것이 1780년에 나온 『임경업전』이라 한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 방각소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8) 구개음화

(a) 가치 아나타 不可 65b, 엇지 75b, 간낙지 75b, 직현의게 守 1-2:101b, 덩점 寢 76a, 동정 洞庭 1-2:62a, 격 敵 1-2:94a, 중 重 13b

(b) 독히 足 1-2:30a, 듀 周 75a, 듀역 周易 87b

(c) 두르셔신대¹²⁾ 反 32a,携슈幼유 40a, 셜루 俠累 1-2:70a, 셜 篋, 셜 夾 1-2:99a

(참고) 상옷 微服 11a

(d) 맛써더니 1-2:83a (cf. 맛디니 1-2:75a)

(e) 닐홈 號 73b

(a)는 ㄱ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중부방언에서 ㄴ구개음화는 판본 자료의 경우 伍倫全備諺解(1721년), 女四書諺解(1736년) 등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자료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난 환경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만일 17세기 말 18세기 초의 자료라고 본다면 그 외의 방언을 반영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아니면 18세기 30, 40년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b)는 과도교정 형태이다. 한편 (c)는 ㅎ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상옷’이 있는데 ‘상’은 한자 ‘常’이며 고유어와 결합하여 접두어처럼 흔히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상일홈’¹³⁾, ‘상샤롬~상싸롬’(선조 판 小學諺解 1588년 四 1b, 五 64a, 六 12b) 등. (d)는 과도교정의 형태이다(‘맛디->맛지->(과도교정) 맛기-’). ‘맛기-’의 가장 이른 예는 현풍곽씨언간(17세기 초)에 나오며(백두현 2000:380, 각주 19 참고). 판본 중 이른 것으로는 杜詩諺解 중간본(1632년)에도 나온다. (e)는 ㄴ구개음화가 일어나 중국에는 어두 ㄴ이 탈락한 것을 보이는데 이 경우 ‘닐홈’이 과도교정된 형태이다.

(9) 원순도음화

(a) 북 北 75b, 부암 傅巖암 32a, 더부러 1-2:55b, 보희 寶 1-2:62a

(b) 직업을 職 29a, 집을 室 34a, 나물 生 37b, 남을 南 49a

12) 이후의 판본에서는 모두 ‘두르셔신대’로 교정되었다.

13) 졸고(2000:171)에서는 이 단어를 ㅎ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렇게 보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 (b') 불덕(佛德) 1b, 브릇 1a, 5a, 북두별(北斗) 6b, 불 불드시 18a, 불 火 35a,
1-2:30b, 물 水 18a, 52b, 브서워 21a, 1-2:43a, 1-2:48b, 갓플 膠 49b, 브억
1-2:21b, 브집게 1-2:54b, 24a, 북녁크 北 1-2:62b, 더브러 1-2:74b,
(c) 고을 郡 1-2:31b, 1-2:44b, 1-2:56b, 1-2:64b, 1-2:72b, 1-2:88a, 누워 1-2:70a
진문공오로 1-2:74b, 올므모로 59a, 강호모로 1-2:53a

여기에서 보듯이(b') 대부분의 경우에 순자음 아래에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가 일반적이다. (a)는 형태소 내에서 일어난 것이며 (b)는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곡용에서도 원순모음화도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다. (c)는 다른 기제에 의해서 일어난 원순모음화이다.

(10) 모음충돌 회피

머리롤 조와 頓首 60a, 마초와 8a, 보와 6b, 35a, 39a, 52b, 1-2:55b, 1-2:66a, 가도와 15a, 가도왔더니 36b, 밧고와 4b, 밧보와 4b, 66a, 다토와 42a, 1-2:91a

이 예들은 원순모음 어간 뒤에 ‘-아/어’가 올 때 모음충돌 회피를 위하여 ‘w’가 삽입된 것이다.

(11) ·의 변화

브람 風 16b, 49b, 1-2:86a,

번거러 更 1-2:101b, 좌우더려 10b, 밧도덩더려 10b, 잇느니더려 10b, 태공더려 76a, 신하더려 79b, 니극더려 1-2:59b, 오괴더려 1-2:62a, 진비더려 1-2:67a, 콧외더려 1-2:81a, 어미더려 1-2:98b, 문하더려 1-2:103b, 위왕더려 1-2:103b, 위제더려 1-2:104a,

‘흙’을 제외하고는 제1음절에서 ·의 변화를 보이는 예는 없다. 이 문헌의 한 특징은 ·가 제2음절 아래에서 ㅓ로 변화한 것이다. ‘번거러’는 ‘번ᄒ라’에서 바뀐 것이다. 특히 ‘-드려’가 ‘-더려’로 바뀐 것이 매우 흔하다. 이에 대해서는 백두현(2002)에서 다룬 바 있다. 이 어형은 화곡판 이후 판본에는 모두 ‘-드려’로 도로 바뀌었다.

(12) 움라우트

계집 80b(거집 29a), 다내샤 37b

움라우트를 겪은 예는 위의 것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13) 자음동화

박고와지라 1-2:44b, 낫가족 벽기고 皮面 1-2:70b, 각가이 1-2:39a, 각그샤 刪 87b, 악가는 鄉 1-2:103b, 숙그린 堅(豎) 1-2: 53a

만나 遇 1-2:58b, 무진난 52b, 취호연논디라 1-2:60b, 인논 1-2:70b, 인논나 1-2:63b, 인논디라 1-2:89a, 진논다 68b

거준말 46b, 열여덟한만의 1-2:68b; 굶논 35a; 병장기 鋒 1-2:91a, 궁기 窟 35b

이 예들은 각각 ‘밭-고>박-고, 벗-기>벽-기’ 처럼 ㅅ이 뒤따르는 자음에 동화되는 현상 즉 역행 동화를 겪은 것이다. ‘잇-논나>인-논나’와 같은 동화는 이미 16세기부터 보이던 변화이다.

(14) 자음 덧남

근처 止 1-2:65b, 근처디거늘 絶1-2:87a, 근처디더라 絶 87b, cf. 근처디매 絶 1-2:69a

이 예는 치찰음 ‘ㅈ’ 앞에서 ‘ㄴ’이 덧난 것이다. 비슷한 예로 ‘굶초다 逸 54b, 1-2:24a’가 있다. 원래 ‘ㄴ초->근초-14)>굶초-’로 된 것이다.

(15) 어휘

(a) 자할 구 18a, 격경이 槽 25a, 쓰령이에 뽕 것 苞苴 29a, 명화 藜 34a, 열형 庶兄 35b, 열아오 庶弟 58a, 열아이 1-2:22b, 어리니 幼 40b, 63b, 꿇춤이 薇45b, 자족 跡 50a, 주히 匠 92a, 노티마 駕 1-2:47b, 헌 병 癩 1-2:39a, 브으름 痘

14) ‘근초와’ (七大萬法 1569년 14a), ‘근초머’ 隱 (野雲自警序 1577년 67a, 1583년 5a). 이기문(1998:209 참고).

1-2:61a, 짐바리 輻重 1-2:42b, 헛사람 偶人 32b, 올흔 의 義 45b, 64a

‘자할’은 한청문감에 ‘자할 脚齒’(十一 12a)이 나온다. 만주어로는 šaban으로 되어 있다. 현대어에 비슷한 음상,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갈’이 있다. 사전에 ‘산을 오를 때나 눈 길을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굽에 못을 박은 나막신’(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풀이되어 있다. ‘쓰렁이에 뽀 것’을 유창돈(1964)에서는 뇌물(賂物)로 뜻을 달아 놓았다. 한자 ‘苞’는 ‘그렁’이라는 풀이며 ‘싸다’라는 뜻도 있다. 사전에 ‘수크렁, 암크렁’이 있음을 보아 ‘숨, 암ㅎ+그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암크렁’이 곧 ‘그렁’인데 풀이를 보면 “포아풀과 에 속하는 다년초. 중약. 잎은 밧줄의 대용 또는 편물용(編物用)으로 쓰임”(『국어대사전』, 민중서림)으로 되어 있음을 보아서 ‘쓰렁이’가 이 풀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꾸러미’와 음상이 유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글회영’ 管(詩經諺解 七 物名 1a) 및 ‘그르영’ 勒草(유회 물명고 三 草, 廣才物譜 三 草 山 3b) 참고. ‘명화’는 명아주이며 다른 문헌에 ‘명희, 명화지’ 등으로 나온다. ‘얼형, 얼아오’의 ‘얼’은 한자 ‘孽’이다. ‘어리니’는 ‘어린+이’로 분석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어린이’ 뜻으로 쓰였다. ‘어리-’는 원래 ‘어리석-’의 의미를 가졌던 것인데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 이른 예 중의 하나로 ‘어린이’(幼)(警民編 22, 1658년)를 들 수 있는데(이기문 1997:110 참고) 이 책의 예도 꽤 이른 예라고 할 수 있다.¹⁵⁾ ‘꿋춤이’는 ‘고사리’의 뜻인데 다른 문헌에는 ‘회초미 貫衆’(譯語類解 下 11, 漢清文鑑 十二 40), ‘회춤’(物譜 上 藥草 二之一) 등으로 나오며 같은 어원을 지닌 단어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관계가 동과(冬瓜):동화(冬瓜), 괴화(槐):회화 등에서도 발견된다¹⁶⁾. 위의 ‘꿋춤이’와 ‘회초미’의 관계도 한자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족’은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히’는 類合에 ‘주위 장’ 匠 (下33)

15) 교정청본 小學諺解(1588년), 孝經諺解(1666년) 등에서도 ‘幼’를 ‘어리-’로 번역한 예가 있다(줄고 2001:26, 각주 26 참고).

16) 동과(朴通事諺解 中 56a), 동화(飜譯老乞大 下 38a, 七大萬法 13a, 朴通事諺解 中 34b, 物譜 上 草果 등), 괴화(石峰千字文 21b, 漢清文鑑 13:23b), 회화(訓蒙字會 上 5b, 救急簡易方 六 24a, 物譜 上 藥草 二之二).

으로 나온다. ‘헌 병 癩’은 선조판 小學諺解(1588년)에 ‘라질’(四 31b)로 나온다.

(b) 흘기여디디 竄 14a, 흐워흐미여 爛 17a, 드티터 跌 35a, 헛브러눌 毀 1-2:25a, 헛새리게하다 毀 1-2:55b, 팔을 놀브러 奮臂 1-2:28b, 쓰레하더라 糜(靡) 1-2:46a, 밍고 襲 1-2:91b, 밍죽이고 襲殺 58b, 씽기기 嘔 1-2:72a, 숙그리하야 聳 1-2:17a, 숙그리흔 堅 1-2:22a, 숙그린 堅 1-2: 53a, 스승하니라 師 1-2:42a, 1-2:82b, 주인브티다 舍 1-2:84b , 읍쥬어려 생각하야 謔21b, 얼굴하엿더라 象 20b

‘드티터’는 ‘드티-티-’인데 한자 ‘跌’을 번역한 것으로 보아 ‘넘어지다’의 뜻이다. ‘드티여’가 東國新續三綱行實圖(孝三 56)에 ‘디디다’의 뜻으로 쓰였다. ‘밍고, 밍죽이고’의 ‘밍-’는 문헌에 드물게 나오는 형이다. 新增類合에 ‘襲 인홀습, 밍 습’(下 25)으로 나온다. ‘헛브러눌’이 권2에는 ‘헛브러’(94a)로 나온다(백두현 2002 참고). ‘팔을 놀브러’는 유합에 ‘놀부출 분’ 奮(下 39)으로 나온다. ‘숙그리-, 숙그리하-’는 ‘머리털이 솟아오르-’가 원래의 뜻인데 첫 예는 ‘두려워 하-’의 뜻으로 쓰였고 뒤 두 예는 ‘더벅머리를 하-’의 뜻으로 쓰였다.¹⁷⁾ ‘얼굴’이 15세기에 ‘모양, 형상’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하다’가 붙어서 동사로 쓰였다.

(16) 한자 어휘(1)

원찬하시고¹⁸⁾ 竄 15a, 이멸하면 夷 1-2:68a, 구식하야 索 25a, 모범하야 冒 1-2:90b, 좌죄하느니라 坐 97a, 조지하얏거늘 黥 1-2:21a, 조지하야 1-2:95b, 복호하고 復 1-2:94a, 조모바드되 募 1-2:94b, 티장을 도와 資 1-2:41a, 춤남이 僭 51b, 58a, 구완하- 救, 援 50b, 1-2:21a, 1-2:51a, 천거하- 薦 13b, 17a, 21b, 1-2:67a, 거천하- 舉 13a, 15b, 18a, 1-2:59b, 1-2:60a

17) 영남대학교 소장의 한 京中本(도서 번호 古912 증선지 4)은 국립도서관 본과 동일 판본이나 종이를 오래 붙여 수정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그 중 ‘숙그린 아히’(1-2:22a, 국립중앙도서관)를 ‘더벙머리 아히’(영남대학 소장본)로 고쳐 놓았다.

18) ‘원찬하시고’로 되어 있다.

‘遠竄, 夷滅, 求索, 冒犯, 坐罪, 刺字, 復戶(?), 資募(?), 僭濫’ 등의 한자어를 써서 번역하였다. ‘구완’은 新增類合(敎 구완 구 下 11a)에 나타난다. 한편 이 책에서는 ‘천거’와 ‘거천’을 반드시 구별하여 번역하였다.

(17)한자 어휘(2)

흔 가지로 화흥이라 共和 53a, 가운데 와 니러나니라 中興 53a, 몸을 혈위 文身 41b, 모딜고 춤고 殘忍 1-2:61a, 뇨 헤아리미 料量 83a, 빗난 오솔 文章 7a

오늘날 ‘공화, 중흥, 문신, 잔인, 요량’ 등의 단어로 쓰이는 것인데 달리 번역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 ‘잔인’을 ‘모딜고 춤고’로 번역하였는데 ‘잔인호’ 또는 ‘잔인호-’ (殘忍)가 오늘날과 같은 뜻을 가진 예는 癸丑日記(1613), 敬信錄諺釋(1796년) 등에 나온다.

(18)교체 어휘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형태를 보이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몽그라늘, 몽그니 33b, 몽그라 34b, 몽글고 59a~몬다라 3a~팅글고4b, 7a, 텅그라 4b

산형호다가 獵 33a~산영호 43a

즘싱 27b ~즘승 33a, 83a

‘몽글-’은 이 문헌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어형이다. 15세기에는 ‘밍굴-’만 있었고 16세기에 ‘밍굴-’과 ‘민들-’, ‘몬달-’ 등이 나타나는데(이기문 1991:36-37) 여기에 ‘몽글-’형을 추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기문(1991:37)에 의하면 유창돈(1974:46, 『어휘사 연구』)에서 ‘*몬굴-’을 재구한 바가 있다고 한다. 백두현(2000:377)에 의하면 현대 방언에서도 ‘망글-’이 쓰인다고 한다. 따라서 현대방언에서 쓰이는 ‘만들-, 팬들-, 망글-, 맹글-’ 중 이 문헌에서는 이들 중 세 가지가 쓰인 문헌이다. 현대어 ‘사냥’의 어원은 ‘山行’인데 위의 ‘산형’은 어원을 의식한 표기일 것이고 ‘산영’은 그것이 변한 형태이다. ‘산영’은 詩經諺解(1613년, 산영개 五 物名 1b, 사녕개 六 物名 3a)에 나온다. ‘즘싱’과 ‘즘승’은

더 이른 시기부터 공존했던 듯하다. ‘증승’이 杜詩諺解 초간본(1481년)에 이미 나오기 때문이다.

(19) 그 외

피과 기장, 벼과 기장 禾黍 37b, 뭇 昆 1-2:42b, 암 雌 24a, 수 雌 24a

左자右우 44b, 47b, 77b, 且 도 16b, 1-2:67b

‘禾’를 ‘피’로도 ‘벼’로도 번역하였다. 위의 ‘뭇, 암, 수’는 명사로 쓰였다. ‘左’의 한자음이 ‘자’로 되어 있는데(단 권一之二에서는 ‘좌’로 많이 나타난다) 석봉천자문(20b), 주해천자문(20b) 등 몇몇 문헌에서 이런 음이 나타난다¹⁹⁾. 한편 ‘트’은 ‘도’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석봉천자문(23b), 주해천자문(23b)에는 ‘도’로 되어 있으며 후자에는 太祖御諱이어서 朝 즉 ‘조’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해 놓았다.

(20) 문법

(a) 무로되 1-2:70b, 바드되 1-2:94b

17세기가 되면 이전의 ‘-오라’가 ‘-으랴’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되’는 이전의 형태인 ‘-오-디’에서 17세기 이래로 ‘-오-’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으되’로 된 것이다(이영경 1992:21 참고).

(b) 진을 내틸만 ㄹ디 못흐다 莫如... 撰秦 1-2:41a

다른 덩위 물울만 아니흐나 非但廷尉問耶아 (二94b)(백두현 2002)

이후에 ‘내티기만 같지 못흐다’처럼 되는 ‘-르만’ 구문이다. 이 구문에 대해

19) 이런 책에는 ‘佐’도 ‘자’음이 달려 있다. 단 『광주천자문』에는 둘 다 ‘좌’로 나온다. 재미 있는 것으로 ‘坐’의 경우 거꾸로 광주천자문(5b)에는 ‘자’로, 다른 두 문헌에는 ‘좌’로 되어 있다. 한편 勸念要錄(1637년)에는 ‘左 14b, 座 3b, 6b, 32a’가 대부분 ‘자’로 되어 있다(참고 座 ‘좌’ 10a, 29b).

서는 박진호(1995)에서 다른 바 있는데 ‘만’이 이전에 의존명사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논문에서는 ‘만’의 경우 번역소학(1517)과 교정청판 소학언해(1588)의 비교를 통하여 기능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은 그 뒤에도 비록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쓰인 듯하다. 교정청판 소학언해의 내용을 숙종판 소학언해(1692년)가 다음의 한 예를 제외하고는

- (c) 아히 비호돈 기다히며 외올만 홀 줄이 아니라(교정청판 소학언해 5:4b 1588년)
아히 비호돈 기다히며 외오매 그칠 썬시 아니라(숙종판 소학언해 5:4b 1692년)

나머지 6개 문장에서 그대로 ‘만’을 쓰고 있으며 이 책을 답습한 어제소학언해(1744년)와 무교판 소학언해(19세기 후기)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이 유가의 책이므로 그 이전 판본을 그대로 따라 한 경향이 강하므로 이 예들로써 18세기와 19세기에 활발하게 쓰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음을 지적하여 이 구문이 18세기에도 쓰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 (d) 크게 손 거슨, 대문을, 썬시니 외오고, 또 줄게 손 거슨 깃픈 썬들 썬시니
불 만하라(서왕가 39a, 1704년)²⁰⁾
고통스톨 뵈힐 만 호고(持經靈驗傳 2a, 1795년)
도라가게 홀 만 갖디 못호다(持經靈驗傳 20a, 1795년)

(21) 그 밖

- (a) 북두음□별을 두리시물 보고 繞北斗樞星 5a
(b) 물째 1-2:82b
(c) 나라일을 53a, 뵈그라 32b

(a)는 ‘두르-’에서 ‘두리-’로 변한 것이라면 ‘ㄹ 아래에서 전설모음화’가 이루

20) 줄고(1994:27 각주 10 참고).

어진 이른 예가 될 것이다. (b)는 ‘뺨’가 ‘뺨’로 변한 것이라면 이중모음의 단 모음화의 이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이 문헌은 오자 탈자가 많은 문헌이어서 여기에서 든 예는 적극적인 예로 삼지 않는다. (c)의 예는 밑줄을 친 글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는 것들이다. 이 책에는 오각, 탈각 등이 워낙 많아서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글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다는 것은 판하본이 활자본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한다. 즉 활자를 거꾸로 심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추측을 삼가며 다만 예만 들어둔다.

2. 번역 상의 몇 문제

小學은 十九史略과 같은 류의 童蒙書로서 사서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내용을 각각 어떻게 언해하였나 하는 것도 관심거리이다. 혹시 연대 추정에도 도움이 될 지도 몰라서 여기에 들어둔다. 두어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22) (a)趙襄子 殺 智伯 漆其頭 以爲 飲器

趙도襄양子즈 | 智디伯빅을 죽이고 그 머리를 漆칠하야빠 오줌 누는 그릇
슬 밍그랏더니(선조판 小學諺解 四 30b)

이 내용이 1692년에 간행된 숙종판 小學諺解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b) 趙도襄양子즈 | 智디伯빅을 죽이고 그 머리를 漆칠하야빠 飲음器기 (一云
슬 먹는 글웃 一云 오줌 누는 글웃이라)를 밍그랏더니(숙종판 小學諺解 四 34a)

‘飲器’를 ‘오줌 누는 그릇’이라고 했던 것을 ‘슬 먹는 그릇’으로도 볼 수 있음은 小學集解의 註解에 의한 것이다. 이 이후의 小學諺解 판본 즉 御製小學諺解(1744년)나 武橋版에는 위의 (b)와 꼭 같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영남대학본 小學諺解(1740년 경, 자세한 것은 줄고 2000 참고)에는 선조판 小學諺解와 같

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인 十九史略諺解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c) 襄子 漆 智伯之頭 以爲 飲器

양조 | 디빅의 머리롤 옷칠호야 써 술먹는 그르술 삼다(규장각본 1-2:37b)

규장각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판본에도 같이 되어 있다. 다음 예로 넘어간다.

(23) (a) 始시爲위象箸

비르소 상아箸저를 밍글거늘²¹⁾(선조판 小學諺解 四 24b)

이후의 판본들은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十九史略諺解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b) 始시爲위象箸

비로소 상 그린 준을 뭉그라늘(규장각본 十九史略諺解 1-1:33b)

이후의 판본도 모두 같다. 규장각본의 난상 주에 의하면 ‘箸’에 대해서 ‘記明堂位/ 直略/反/ 尊也 註曰/ 箸者無足而/ 着於地也’라고 하고 있다.

3. 상백문고본과의 비교

권一之一에는 규장각본(및 영남대학본)과 상백문고본(및 연세대학본)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판본을 비교하고자 한다.

두 책은 대체로 같은 판목에서 채출된 듯하나 다른 것도 있어서 한 마디로 선 후 관계를 말하기 어렵다. 장차 5, 6, 9, 11, 12, 13, 14, 19, 20, 21, 22, 25, 27, 28, 30, 31 등은 같은 판목에서 채출된 것이다. 판목이 다르다는 것은 다음과

21) 원문의 ‘箸’ 아래에는 ‘더’로 음을 달아 놓고 언해문의 ‘箸’ 아래에는 고유어에 해당하는 ‘저’를 달아 놓고 있다(筴 저 협, 筋 저 더 訓蒙字會 中 6b 참고).

같은 데에서 알 수가 있다.

(24)	규장각본	상백문고본
제7장	四周雙邊	左右雙邊
제8,17,18, 23장 등	四周雙邊	四周單邊

다음은 두 판본을 비교한 것이다.

(25)	규장각본	상백문고본	
(a)	던 陳	단	3a
	덕 德	텍	3b
	다솻더러라	다솻더리라	4a
	수리톨	수티톨	18a
	질드리기	질드리기	24a
	므셔워	므셔워	24a
(b)	셔개	셔매 立	8a
	새로뼈	새로뼈	8a
	원한호시고	원찬하시고	15a
	헌숨 디히	한숨 디허	21a
(c)	님금	임금	21b
	됴회	조회 朝	21b
	모딘	모진	33a

상백문고본은 가필해 놓은 부분이 많아서 위의 차이가 판목에 새긴 내용의 차이인지 가필하여 고친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위의 (a)는 규장각본이 바르게 되어 있고 (b)는 상백문고본이 바르게 된 것이며 (c)는 상백문고본에서 ㄴ구개음화에 의한 ㄴ 탈락, ㄷ구개음화가 적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대체로 보아서 규장각본이 四周雙邊이 주류를 이루는 오래된 판본이며 보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백문고본은 그것을 복각하였으며 보판이 많이 들어 있는 후대의 판본으로 보인다.

4. 규장각본이 반영하는 언어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규장각본 『十九史略諺解』는 17세기 언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간기가 없기 때문에 간행 연대와 간행지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졸고(1998:257)에서는 이 책이 『慶尙道 冊版』의 陝川조에 나오는 『十九史略諺解』와 관련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백두현(2000:13)에서도 동일한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 책에 간행지 방언인 경상도 방언이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대로 ㄷ구개음화, ㅎ구개음화, 자음동화, 음라우트, 원순모음화 등의 음운 현상은 경상도 방언에서 일어난 음운 현상과 일치한다. 그러나 간행 시기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기에 걸쳐있다고 보는 한 위의 여러 가지 음운 현상은 경상도 방언에 국한된 것일 수 없다. 즉 18세기 전기에 이르면 평안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 모든 방언에서 위의 음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몇몇 어휘가 경상방언적 요소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곡석 34b, 45b, 1-2:93b’을 들 수 있다. 즉 이것을 ‘곡식’에 대한 방언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경상도에서 간행된 문헌에서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에서 간행된 문헌에서도 자주 나옴을 졸고(2000: 181)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26)

곡석글 22a	(正俗諺解, 1518, 경상도 善山)
곡석 12:15a	(杜詩諺解 重刊, 1632, 경상도 大邱)
곡석 2:30a, 4:28b, 5:99b	(小學諺解, 1588, 중부지방)
곡서기 20	(金氏편지, 1565-75, 忠州)
곡석 11a	(警民篇 改刊本, 1658, 중부지방)
곡석 2a, 10b, 11a	(救荒補遺方, 1660, 忠州)
곡석 下33b	(馬經抄集諺解, 1682, 중부지방)

‘계집’도 이러한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지방 간행 문헌에서는 일찍부터 나타나지만 17세기에 이르면 중부방언을 반영하는 辟瘟新方(1653), 老乞大諺解(1670), 속중 내사본 小學諺解(1692년) 등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 몇몇으로 간행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이 반영하는 언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세국어에서 ‘Δ’을 가졌던 어휘가 이 문헌에서는 모두가 탈락한 형태 즉 ‘Ø’로만 나타난다.

(27) 아으 弟 58a, 그으고 晝 3a, ㅁ을 畔, 브으티리라 碎 1-2:45a, 브으럼 痘 1-2:61a, 나아오거늘 進 79a, 나아오더라 83a, 나오와 1-2:90a, 턴자위에 나아가샤 卽位 16a, 17b, 여으 1-2:24a, 그으기 襲 81a, 竊 1-2:67a

그런데 다음의 예는 ‘ㅅ’이 나타나 있다.

(28) 빙성을 친근게 흐야샤 빙성이 반드시 도라 오느니라 (76a)

‘흐야샤’의 ‘샤’는 강세첨사 ‘-ㅅㅏ’에서 발달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형태는 중부 방언에서도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이 방언 형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둘째, 아래의 예는 중세국어에서 순경음을 가졌던 것이 ‘w’로 반영되어 있다.²²⁾

(29) 불와 踐 38b, 蹈 1-2:66a, 불오샤 踐 18b cf. 불디 아니호고 38b

22) 다음과 같은 예들이 다른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 중 세 예는 w마저 탈락한 예이다.

‘불오며’ 履 (野雲自警序 1577년 41a, 1583년 2b), ‘사름 불아 주기고’(馬經抄集諺解 1682년 上 9a), (이하의 예는 광충구 1980:58-60 참고) ‘그 位위를 불와’ (內訓 重刊本 1736년, 34a), ‘사름과 물이 불아’(增修無冤錄諺解 1792년, 三 82), ‘여러히 불은 者자난’(增修無冤錄諺解 三 82)

이 책이 반영하는 방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V. 그 외 판본에 나타난 언어 상태

이하에서는 후대 판본에 대하여 매우 소략하게 주요한 특징만 언급하기로 한다.

1. 화곡판(1749년)의 언어 상태

위에서 밝혀진 대로 화곡판은 그 이전에 간행된 무간기고본을 저본으로 하여 1749년에 간행된 것이다. 당연히 그 이전 판본의 영향이 남아 있을 것이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간행 시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화곡판에 반영된 언어의 상태 즉 18세기 중엽의 언어 상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위의 (4a)는 화곡판에 보이는 변개를 통해서 언어의 변화상을 잘 볼 수가 있다.

1) 구개음화

위에서 보았듯이 무간기 고본은 ㄷ구개음화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기에 이르면 ㄷ구개음화가 매우 활발히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다.

(30) 구안치아니코 7b, 아지 못흔니 7b, 닐위지 7b, 가치 아니흔다 16b, 쇠밋치 牛後 17a, 지나 6b, 직희매8a, 치다 鼓 19a, 찌르고 29b, 36a, 장협 長鉞 12b, 고치고 10a, 턴지 11b, 기친 14a, 내칠만 17a,
(과도교정) 디다혀 倚 11a, 환도답 刀劍室 32b, 가디니 18b,

(2) ·의 변화

백두현(2000)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1음절에서 ·가 변화를 입은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18세기 중엽까지는 제1음절의 ·가 안정적이었음을 이 문헌은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1음절의 ·의 변화는 1770년대부터 나타난다.

(3) 어휘상의 변화

(31) 줍디 39b, 헛브러눌 25a, 풀을 쏘내여 12a, 발뒤축 25b, 썰기기 30a, 베와사 20a, 오로디하다 33a, 감초고 30a, 종 31a, 불 31a, 더지고 40b, 세오기 14a, 세오고 14a

‘줍디’를 ‘줍디’로 고친 것이다. 이미 곽충구(1980:77-78)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중-’이 ‘주어-주워’로 실현되면서 ‘브 어간’으로 인식된 결과 일어난 변화이다. 18세기 문헌에 譯語類解補(1775)에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 문헌에 나오므로 가장 이른 것이 되는 셈이다. ‘줍디’(8a)도 공존하고 있다. ‘헛브러눌’은 한자어 ‘韃靼거눌’로 바뀌었다. ‘풀을 놀브러’ 역시 당시의 언어감각에 맞게 ‘풀을 쏘내여’로 바뀌었다. ‘발쭈머리’가 ‘발뒤축’으로 바뀌었으며 ‘썰기기’가 ‘썰기기’로 바뀌었다. ‘엇게를 술나게 베와사 肉袒’로 바뀐 것은 이미 ‘메왓-〈메뵤-〉’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 단어가 17세기에 이르러 이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였다는 것은 다음의 변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32) (a)(誅齒者 袒右)

齒치를 티고져 호는 이는 올흔 풀을 메와스라 혼대(선조판 小學諺解 1588년 四33b)

齒치를 티고져 호는 이는 올흔 풀을 메와드라 혼대(숙종판 小學諺解 1692년 四37a)

齒치를 티고져 호는 이는 올흔 풀을 메와드라 혼대(영조판 御製小學諺解 1744년 四38a)

(b) 袒은 엇게 메아돔이오(御製內訓 一 59)

‘오로디ㅎ다’ 역시 ‘오로 專’가 이해되지 않아 ‘오로 다ㅎ다’를 ‘오로디 ㅎ다’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끓고’가 ‘굵고’로 바뀌었다. ‘쇠붙’과 ‘갓붙’이 각각 ‘중’과 ‘붙’으로 바뀐 것도 어휘상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북을 드리티고’가 ‘북을 더지고’로 되었다.

‘세오기, 세오고’ 등은 이전판의 ‘세기, 세고’를 고친 것으로 어간 ‘셔-’ + 사동 접사 ‘ㅣ’가 재구조화하여 어간 ‘세-’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전판 즉 무간기 고본에서는 어간 ‘셔-’와 ‘쎄-’가 공존하고 있었다.

2. 경중판(1804년)의 언어 상태

위에서 본 대로 경중판은 화곡판을 거의 그대로 복각을 하였다. 그러나 약간의 변개가 눈에 띄는데 위의 (4b)에서 그 변개를 볼 수가 있다.

우선 ‘우에, 저지의’에서 보듯이 ‘ㅎ말음 명사’의 ㅎ이 탈락한 것이 눈에 띈다. ‘맛기니’는 ‘맛디니’가 구개음화를 겪은 것을 과도교정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미 ‘맛찌더니’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맛디니’마저 ‘맛기니’로 변화하여 어간이 재구조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전판의 ‘다스더라’가 ‘다스러라’ 39b 가 된 것은 이미 ‘다스-’라는 자동사가 이해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타동사 ‘다스리-’를 연상케 하는 어형으로 바뀐 것이다.

19세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1음절의 ㅁ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화곡판을 저본으로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변개가 가해졌음에도 제1음절의 ㅁ는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지적해둔다. 다만 다음의 몇 예에서 변화가 보인다.

(33) 저지의 29b, 뫼신 지ㅣ 36a, 주그밋 16a,

‘저지의’는 이전의 ‘저자화’를 고친 것으로서 ‘저재’ 39a와 비교해 볼 때 제2음절에서 ㅣ와 ㅐ가 중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주그밋’도 마찬가지이다. ‘뫼신 지ㅣ’는 ‘뫼신 지ㅣ’를 고친 것으로서 제1음절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영영판(1832년)의 언어 상태

이 역시 그 이전 판과 달라진 부분을 통해서 언어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졸고(1998)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제1음절의 ㅁ이 ㅂ와 완전히 합류했다. 이외의 언어 상태에 대해서는 졸고(1998) 및 백두현(2000) 등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V. 맺음말

지금까지 十九史略諺解의 무간기 고본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판본의 언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간행지와 간행 연대를 모르는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언어 상태를 다루는 것은 공허한 일일 수 있다. 이 문헌의 경우에도 반영된 언어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언어인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국어사 자료로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쓴 것은 이 문헌을 저본으로 한 후기 간본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간행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국어사 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맺음말을 대신하려 한다.

十九史略은 조선조에 제왕의 학으로서 왕실에서 반드시 읽힌 책이며 조선조 후기에는 일반 양반의 자제도 읽게 되는 동몽서의 하나이었다. 이 책의 일부는 늦어도 1585년에는 언해된 바가 있으나 실물이 현재까지는 발견된 바 없으며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룬 책은 그 이후에 언해된 책들이다. 이 책들의 간행 연대와 영향 관계는 다음과 같다.

무간기고본(18세기 초기)→화곡판(1749년)→경중판(1804년)→영영판(1832년)

이 책들에 대한 인상은 전반적으로 시대의 전후를 막론하고 판본이 정치하지 못하여 오자 탈자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규장각 소장본인 무간기 고본은

왕실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도 빈번한 오자 탈자 등으로 지방판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 뒤에 나온 화곡판은 전형적인 방각본이며 판은 정치해졌으나 이전 판본에 있던 오자를 답습한 경우가 꽤 있다. 경중판은 京中改板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서울 간행판으로 보이는데 역시 오자를 답습하고 있으며 더 개선된 것이 없다. 영영판은 대구에서 간행되어 경상 방언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에 이르러서도 화곡판이 애용된 듯하다.

그러나 국어학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천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국어사 연구에 매우 좋은 자료가 된다. 단 어느 자료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전 판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무간기 고본이라고 불리는 책의 언어 상태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이 책은 그 간행 연대도 간행 장소도 분명치 않으며, 있을 수 있는 그 이전 판본의 영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9년 이전에 나온 것이 확실하고 서지적으로 17세기 후기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친 책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그 시기의 언어 상태를 고찰하게 된 셈이다. 언어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서는 본문으로 미루기로 한다. 그러한 고찰을 통해서 이 책의 간행지 또는 이 책의 반영된 방언은 특정할 수 없음을 말하였으며 따라서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서 더 자세하게 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십구사략언해, 사략, 사략해, 화곡판, 경중판, 영영판

참고 문헌

-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주원(1994), 『普勸念佛文』(龍門寺版)의 구두점 연구, 국어국문학연구(영남대학교) 22:7-57.

- 김주원(1998), 『十九史略諺解』(嶺營版)의 간행 연대, 국어학 32:247-263.
- 김주원(2000), 국어의 방언 분화와 발달, 『한국문화사상대계 I』(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 151-185.
- 김주원(2001), 『소학언해』 연구—17세기 후기 간본을 중심으로—, 국어학 37:3-31.
- 박진호(1995), 현대국어 ‘만’, ‘뿐’, ‘따름’과 중세국어 ‘만’, ‘뿐’, ‘쓰름’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 국어학논집 2:135-143.
- 백두현(2000ㄱ), 十九史略諺解 이본의 언어적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pp. 369-394.
- 백두현(2000ㄴ), 『十九史略諺解』 제 판본의 계통 연구, 국어학 36:3-38.
- 백두현(2002), 新資料 『十九史略諺解』 第二之二 연구(원고).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의 한 측면, 『역사언어학』, 전예원. pp. 57-66.
- 이기문(1997), 어원 탐구 I 어린이, 새국어생활 7권 2호:107-114.
- 이기문(1998), 『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영경(1992),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8,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창현(1995),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 논문은 2002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5월 2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6월 1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